

HDPE, 4월 중국 수출가 대폭인하

수출부장회의, 톤당 850달러 수준 합의 ... PP도 820달러로 조정

석유화학기업들이 Polyolefin 수출부장회의에서 4월 중국 수출가격을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850달러, PP(Polypropylene) 820달러 등 현재 거래가격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해 수출가격이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Polyolefin 생산기업 관계자는 “1월 Polyolefin 가격폭등으로 2월 초부터 구매를 거부해오던 중국의 대형 무역상들이 3월20일경부터 합성수지 재구매에 나서 PP와 HDPE 등이 가격강세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합성수지 가격이 폭등 시 재고량 등을 조절해 가격하락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2003년 말부터 세계적으로 합성수지 수급이 안정화됨에 따라 아시아로 유입되던 공급물량이 줄어들어 가격조절 기능이 일부 상실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인디아, 타이 및 사우디가 중국의 합성수지 공급을 주도하고 있는데, 사우디는 최근 유럽의 수요증가로 아시아 공급이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3월25일 열린 수출부장 회의에서는 수출 목표가격이 1월 톤당 930-950달러, 2월 900달러를 유지했던 HDPE는 4월 850달러로 다소 수정됐으며, PP는 820달러로 조정됐다.

합성수지 무역상 관계자는 “LLDPE(Linear Low-Density Polyethylene)은 HDPE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LDPE(Low-Density Polyethylene)는 중국의 Bid가 상승하지 않고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4월 가격강세 유지원인으로는 원재료인 에틸렌(Ethylene), 프로필렌(Propylene) 등의 원재료 가격강세와 국내 호남석유화학의 정기보수 및 4-6월까지 이어지는 일본의 NCC(Naphtha Cracking Center)들의 정기보수일정에 따른 것으로 석유화학업계에서는 적어도 6월까지의 현재 수출가격이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의 NCC 정기보수 일정은 Yakkaichi의 Tosoh(49만3000톤) 및 Mizushima의 Sanyo Petrochemical이 3월부터 각각 정기보수에 들어갔으며, Misubishi Chemical을 비롯한 3개 NCC가 5월부터 정기보수를 계획하고 있다.

2004년 상반기 합성수지 중국 수출가격에 대해 석유화학업계관계자들은 “중국에 공급하는 한국, 일본 및 동남아시아 정기보수일정으로 현재 수준에서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일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중국의 거래패턴 상 4월까지 강보합세가 유지된 이후 5월부터 중국의 합성수지 구매량이 다소 감소해 하락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2003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9.1%에서 PP를 기준으로 한 합성수지 수요량이 한해 270만톤에서 310만톤으로 수요증가율이 10%대에 달해 중국의 수요증가로 중국 수출가격은 강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동민 조사기자>

<화학저널 2004/04/01>